사 설

초발심이 열반이다

3월 25일은 부처님 출가절이다. 부처님께서 삶과 죽음의 한 가운데를 읽고 그 너머를 꿈꾸시며 왕국의 부와 권세를 훌훌히 떨치고 사문이 된 날이다. 출가란 버릴 줄을 안다는 말이다.

길거리에서 이사짐 차를 볼 때면 누구나 쓸쓸해 질 것이다. 직접 이삿짐을 꾸릴 때는 더하다. 어디선가 꾸역꾸역 쏟아져 나오는 그 잡동사니에 놀랍고 처량하며 화가 치민다. 복잡한 세상에 목숨 하나 붙이고 사는데 이토록 많은 물건이 따라다녀야 하는가고 말이다. 그런 짐부터 줄이고 간소화해가는 훈련을 해 보자. 부처님은 구도의 열정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렸다. 출가절에 주변의 짐부터 정리하는 작은 출가라도 해 보면 어떨까 한다. 가장 잘 하는 인테리어는 아무 장식도 들이지 않는데 있다고 한다.

현란하고 신기한 물건들을 사다 재는 사람들은 남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는 사람이기 쉽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과 더불어 얽혀 속박되기 쉽다. 자아의 확대를 위한 분투, 그리고 그 좌절로 인한 분노와 인간에 대한 편견들이 이를 통해 강화되고 굴절된다. 출가절을 맞아, 이런 사람 사이의 짐들도 벗었으면 한다.

기억할 것이다. IMF가 왜 왔으며 저 기억하기도 싫은 조계종 점거는 왜 일어났는지. 눈먼 탐욕의 결과가 아닌가. 재물과 권세에 대한 욕심의 뿌리는 한가지이다. 현대 불란서의 한 철학자는 인간의 모든 욕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자의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진정한 나의 욕구는 타자의 눈을 통해 오지 않는다. 스스로에서 발원하는 것은 개성적이고 아름다우며 삶의 윤기와 향기를 갖고 있다. 부처님은 그 욕구를 성취하신 분이다. 현세의 오탁을 몰고 오는 것은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는 욕망이기에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도 성취될 수도 없으며, 결국 너와 나를 함께 패망시키는 죽음의 행진일 뿐이다. 부처님은 오랜 고행 끝에 이 진실을 아셨다.

출가절이다. 우리 모두 처음의 그 애틋하고 붉은 발원 그대로 돌아가 나를 비우고, 그곳에 그분이 살게 하자. 출가절과 열반절을 맞아 범종단적으로 초발심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각 사찰에서 참회정진과 발심수행을 위한 순회공연과 특집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니 이번 기회에 부처님제자로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중 모두가 함께 몇시간이고 하룻밤이고 묵언수행을 함께 진행하는 행사를 벌이면 어떨까. 침묵만큼 큰 설법이 없다.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신구의(身口意)로 지은 업과 탐진치(貪嗔痴)의 해독을 정화시키고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은 45년간 긴 혀를 늘이시어 설법을 하셨다고는 하나 구구절절 지침을 주고 행동을 권유하시지는 않았다. 그 사는 모습 그대로가 교과서요, 분발의 채찍이라 따로 달리 말이 필요없으셨을 것이다. 도량의 모습도 그러해야 한다.

진정 참회해야 한다. 불교가 우리의 정신을 리드하는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한 종교'로 격하된 현실을 아프게 인정하고 그 너머를 바라보는 전망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불교는 미래의 자산이다. 그것을 믿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해법은 언제나 근본정신에 있다. 경전을 읽고, 수행을 하며, 경건하게 계율과 의식(儀式)을 가다듬는 가장 '기초적'인 일에 매진하도록 하자. 초발심, 그게 다름아닌 열반이다. 그래서 출가절과 열반절이 같이 있는 것이다. 4월 1일은 열반절이다.

조계종 中信會 운영 '공백'

13일 회장선출 무산…선거 3개월 연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회장없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을 것으로 보여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계속된 업무 공백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3일 오후 조계사 대웅전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당초 계획한 신임회장 선출에는 실패했다. 이날 결정하기로 한 회장 및 임원진의 선출은 하루 전 총무원과의 합의로 정관에 의거해 3개월안에 선거관리위원회(9인)를 구성, 선거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신회는 회장 임기만료로 15일부터 사무국 선임자인 교화부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돼 업무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회장 선출이 연기된데 대해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김한곤 직무대행의 소명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이 총무원측을 비난해 총무원과 중앙신도회가 다시금 갈등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김한곤 직무대행은 "고산스님이 쌍계사 신도인 대도건설 백창기회장을 회장후보로 천거한 것이 대의원총회 며칠 전이었으며, 사전에 충분한 설득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회장단일화를 시도해 중앙신도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원택스님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회장 천거가 늦어진 것은 종단사태로 인해 겨를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대의원들은 총무원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회장을 뽑도록 강요하지 않는등 과거보다는 다소 신도회를 존중하고 있으며 3개월후 재선거도 이같은 인식의 반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총무원측 역시 신도회의 자립성 확보차원에서 진일보한 총회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만간 운영회의를 통해 선거 체제로 들어갈 신도회 신임회장으로는 김한곤 前회장직무대행이나 고산스님이 추천한 백창기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前대행은 총무원과의 갈등이 노출된 점, 백창기씨는 신도회 활동이 전무한데다 지명도가 낮은 점 때문에 제3의 인물이 물색될 것이란 추측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원로의원 연령 80세로 제한

조계종 종헌종법 특위

조계종 종헌·종법개정특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22일부터 열리는 139회 임시중앙종회에 상정할 원로회의법 개정안, 중앙종회의원선거법 개정안, 본사주지회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세 법의 개정안은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또다시 심의해 통과된다.

원로회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원로의원 연령을 65 이상 80세 이하로 제한(현행은 65세 이상)하도록 했다. 개정안대로 따르면 현 원로의원 중 운경, 비룡, 응답, 도천, 석주스님이 원로의원 자격을 상실케 된다.

정성운 기자

◇태고종은 대종사 및 종사 법계 품서식을 12일 봉행했다.

태고종 원로 13명 대종사 추대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종단사상 처음으로 대종사 및 종사 법계 품서(稟敍)식을 12일 서울 성북구 태고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이번 품서식은 지난 1월 치러진 제7차 법계고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법계고시위원회는 9일 대종사 13명, 종사 34명, 종덕 71명, 대덕 58명, 중덕 48명, 대선 27명 등 모두 251명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덕암 태고종 종정이 증명법사로 참석한 이번 품서식에는 장벽응스님 등 태고종 원로 13명이 대종사 법계를, 김대운스님 등 34명이 종사 법계를 받았다.

대종사로 추대된 원로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벽응(91, 인간문화재) 박송암(85, 인간문화재) 차몽월(81, 극락정사) 박금봉(80, 백련사 조실) 김춘명(79, 원각사) 임용호(83, 대성사) 이만봉(90, 인간문화재) 신벽산(78, 다천사) 이운제(78, 전 총무원장) 유해운(86, 용운사) 김벽암(77, 도봉사) 김혜경(81, 봉원사) 변월명(78, 극락사)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징계대상자 옹호 묵과 않겠다"

조계종 해종행위특위

조계종 해종행위조사 특별위원장 범종스님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단의 일부 소임자들이 개별적 친소관계와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징계대상자를 원칙없이 옹호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종특위는 1월 27일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종단사태와 관련해 초심호계원에 60명의 징계대상자를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초심호계원에서 11명이 멸빈, 14명이 제적, 35명이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해종특위는 이후로도 40여명을 징계에 회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종행위 조사대상자가 애초 예상했던 3백여명보다 적은 1백명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내 最古 추정 마애삼존불 발견

군위~선산간 국도변 6세기 조성…한국조각사 연구 획기적 자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삼존불은 조류사진작가 김종호(46)씨가 군위군 소보면 군위-선산간 국도변 바위에서 발견했다. 18일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불교미술학)교수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6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마애삼존불로 밝혀졌다.

삼존불은 10m 높이의 암벽 윗부분의 바위가 2m 정도 튀어나와 지붕을 형성, 천연의 감실 또는 석굴을 이루고 있으며 그 속에 본존불은 높이 2m, 두 협시불은 높이 1.7m로 연꽃무늬의 대좌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본존불은 시무외인을 취하고 있고, 두 협시불의 경우 왼손은 손바닥이 밖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얼굴 부분은 양각을 했고 몸체는 깊게 새긴 선각으로 삼존불 모두 머리부분에 원형의 두광(頭光)이 표현돼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경주 단석산 신선사 마애불상군(국보 199호), 태안 마애불(보물 432호)등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됐던 마애불보다 조성시기가 다소 앞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충식교수는 "이번에 발견된 마애삼존불의 조각양식은 한국불교조각사와 불교전파 경로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며 "암질이 좋지 않아 조성시기를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신라에서 불교가 공인된 6세기를 전후해 조성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조계종, 미갱신 포교사 복권

4월부터 2천여명 대상 전문화교육 실시

조계종 포교원 포교사단은 95년 이후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포교사 자격 미갱신 및 갱신탈락자에 대한 복권을 실시한다. 작년 말까지 포교원에 등록된 포교사 수는 모두 2천3백여명이며, 이와 비슷한 숫자인 2천여명이 포교사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들 중 상당수가 복권될 경우 포교 역량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교사단은 4월부터 4개분야로 나눠 포교 전문화 교육을 실시, 교육에 참가하고 활동분야별 팀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포교사 자격 복권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갱신상의 문제 이외의 사항으로 자격이 박탈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미갱신 포교사에 대한 자격 복권은 형식적 자격관리를 탈피, 활동내역 중심의 포교사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중인 포교사 제도개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연등축제 TV방영 요청

조계종, 방송 3사와 실무협의 진행키로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17일 한국방송공사를 방문, 박권상 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연등축제를 녹화해 부처님 오신날에 방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산스님은 15일에는 MBC 노성대사장, 18일에는 SBS 윤세영 회장을 잇따라 만나 연등축제 녹화방영을 요청했다. 고산스님은 "연등축제를 녹화 방영한다면 연등축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으로 자리매김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 박사장과 MBC 노사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양측 실무자들이 논의토록 하자"고 응답해 실무협의에 따라 방영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회망과 평화의 만남

나라가 어려울때(國難) 불교전통(佛敎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念佛萬日會

한국불교는
念佛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대중화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念佛로 중흥 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시민이 필요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

중국 아미타 성지순례단 모집

아미타불 성지로 유명한 중국의 정토종 발원지 여산 동림사, 소주 영암사 등을 순례, 이땅에 정토세계를 실현하는 원력을 세우고자 기묘년 새해 중국 아미타 성지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순 례 : 서울-상해-여산 동림사(정토종 발상지), 대림사(4조 도신)-구강 서산사, 동산사(5조 홍인)-황매현-남창 개원사(마조)-상해-소주 영암산사(정토종, 3대)-상해-서울
■출발일정 : 99년 5월 2일 ~ 5월 7일(5박6일)
■동 참 금 : 103만원(미리 접수바람)

아미타불을 부르면 밝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란?

⊙ 제 1 차 : 신라 758년(경덕왕 17년)에 발징화상이 건봉사에서 최초로 염불만일회 개최
⊙ 제 2 차 : 1802년(순조2년)에 건봉사 전통이어 결성
⊙ 제 3 차 : 1851년에 벽오유총 스님을 회주로 결성
⊙ 제 4 차 : 1881년에 만화관준 스님을 회주로 결성
⊙ 제 5 차 : 1906년에 금암의훈 스님을 회주로 결성

제 6 차 전국 염불 만일회 이렇게 추진합니다.

1. 염불만일회 대발심 성지대회
▶일 시 : 99년 8월 2일~4일(2박3일)
▶장 소 : 금강산 건봉사 (강원도 고성군)
▶대 상 : 사찰, 단체, 개인별 신청가능
2. 염불 만일회 신년간담회
▶일 시 : 1999년 3월 30일 오후 3시
▶장 소 : 송현클럽(한국일보 13층)
3. 정토학회 학술세미나
▶일 시 : 1999년 10월 (장소 부산광역시)
▶내 용 : 정토학자 초청 학술회

전국 염불만일회 회원 모집

▶회원자격 : 염불수행을 원하는 모든 분
▶회원대상 : 사찰, 단체, 개인별로 가입
▶회원회비 : 가입비 1만원(매년회비 1만원)
▶가입방법 : 전화 및 우편(사무국 : 02)732-1215~7)

회원이 되시면

▶아미타불의 수행방법을 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만일회 소식을 가정에서 통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염불일일기도 수첩 보내드림)
▶전국 대도시별로 회원 관리 혜택이 주어집니다.
▶평생동안 염불만일회 회원이 됩니다.

회원가입 은행 입금계좌 (예금주 : 염불만일회)

국민은행:023-21-0667-309 조흥은행:390-04-249351
농 협:053-02-128104 우 체 국:010041-0384727
외 환:173-18-10454-9

아마타 무용단 모집

부처님께 춤을 공양 올릴 신심있는 단원을 모집합니다.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동산법당)
▶지 도 : 한순옥 선생(목련훈장 수상)
▶대 상 : 초보자 환영

全國念佛萬日會

공동대표 : 김해장 스님 (건봉사 주지)
한보광 스님 (동국대 교수)
김재일 법사 (동산반야회장)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 (02)732-1215, 1216, 1217 FAX :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